

社 說

일동종교 명문 만들기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에 위치한 일동종합고등학교가 명문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사와 학부모들이 한마음이 되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관심제도가 요구되고 있다.

일동종합고등학교 교장이 교사들은 학교를 우수한 인재로 육성하는 명문고로 만들기 위해 교육부에 놓여준 우수학교를 만들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그 결과 교육부는 지난해 일동종합고등학교를 놓여준 우수학교의 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시범학교로 지정하고 예산 15억원을 책정했다.

물론 경기도 예산과 포천시 예산을 포함해서다. 가장 먼저 추진하는 사업은 역시 기숙사 건립 사업이다. 기숙사 건립이 시급한 것은 학생들이 학교에 남아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함으로써 학습량을 늘리고 심화 학습을 통해 우수인재를 육성한다는 취지 때문이다.

일동종합고등학교는 "학습자의 흥미와 적성을 살리는 교육공동체 구성"을 교육목표 삼아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진로 지도에 충실하고 특기적성 교육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다.

시범학교 운영으로 대도시로의 조기 전학 및 지역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자녀교육으로 인한 이농(離農)을 방지하며 지역사회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학교를 만들고 동등한 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동종합고등학교는 통합교육과정 운영 기반조성에 나섰다. 먼저 교수-학습개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교과연구실을 운영하고 교수-학습도움센터(http://study.edulldong.net) 운영과 실험·실습실의 선진화와 우수교사를 유치와 산학겸임교사 및 계약교사를 유치했다.

이제 큰 틀의 교육시스템은 갖춰졌고 보다 획기적인 교육프로그램 확보가 중요하다.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고 이 예산은 결국 지역주민 모두의 힘이 모아져야 한다. 지역주민들의 힘이 하나로 모아질 때 일동종합고등학교가 명문학교로 자리매김될 것이다.

영입된 우수한 교사들이 명문고등학교를 세우기 위한 각종 아이디어를 모아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이같은 프로그램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역시 큰 예산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전국에서 육성하고 있는 놓여준 우수학교에 공평하게 예산을 배분하고 있다. 일동종합고등학교에서 아무리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해도 역시 동등하게 배분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역주민들과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체가 일치단결하여 일동종합고등학교 명문학교 만들기를 위해 기금모에 나서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충당한다면 교육부도 자연스럽게 일동종합고등학교에 그에 상응하는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다른 학교에 비해 더욱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우수한 교사들을 유치하여 완성한 교육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적용되어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는 학교로 거듭 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 스스로 만들어가는 지역 명문학교는 오랜 시간이 흘러도 그 깊은 뜻과 훈이 담겨 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일동면 기산리 소재 일동종합고등학교를 명문고로 육성하는 일에 십시일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나서야 할 때이다. 그리하여 더 좋은 학교, 더욱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나서야 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윤중아파트 주민 “경매라도 막아주세요”

이철우 국회의원 윤중아파트대책위 사무실 방문

최근 윤중아파트 분양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이철우 국회의원(사진.열린우리당)은 지난 19일 오후 1시 포천시 신북면 소재 윤중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승용) 사무실을 방문해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이철우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오후 1시 포천시 신북면 소재 윤중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승용) 사무실을 방문해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안승용 비상대책위원장은 “입주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게 되었는데 포천시 관계자나 경기도의원, 포천시 의원 아무도 와주지 않는데 이철우 국회의원께서 이렇게 방문해 감사한다”며 “경매라도 막아 이곳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이철우 국회의원은 안 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한 뒤 대책 마련에 나서보자고 말했다.

윤중아파트 사건은 지난해 12월 최종 부도 처리된 시공사인 윤중건설(대표 허필용)이 포천시 신북면 윤중후세빌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금융권으로부터 이중으로 대출을 받아 대출액이 아파트 담보가치를 초과한 상태에서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이를 알지 못하고 입주한 160여 세대가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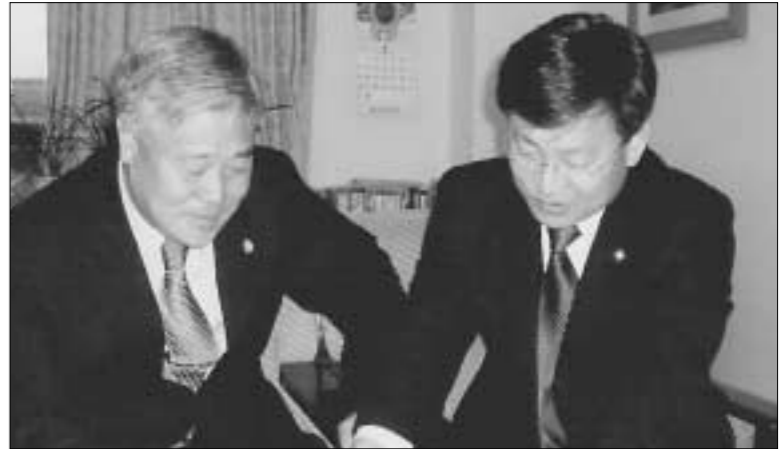
윤중건설은 지난 2003년 7월까지 지 578세대를 건립했으나 350여 가 구만 분양된 상태에서 나머지 미분양분을 건설사 임직원과 공사업자 및 관계자 등이 계약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국민은행으로부터 한 채당 4천여만원의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 건설사는 국민은행이 대출 후에 이들 아파트에 대해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은 것을 이용, 이 아파트를 담보로 3곳의 제2금융권으로부터 40여억을 대출받았다. 국민은행은 뒤늦게 근저당을 설정하려 했으나 이미 제2금융권에서 근저당을 설정한 후였고 이 아파트의 분양가가 6천여 만원에 불과해 건설사가 부도나면 대출금을 회수할 길이 없었다.

이에 건설사와 국민은행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미분양분 아파트를 분양계약을 하면서 은행대출에 대한 채무인수 약정을 포함시켰으며, 이 사실을 모른 채 입주하는 주민들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올해 초 건설사인 윤중건설이 최종 부도 처리됨에 따라 제2금융권 측은 아파트 경매절차에 착수, 입주자들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이병욱 포천시의회 군부대사격장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좌)이 이철우 국회의원(右)을 만나 입법청원서를 전달하고 있다.

군부대 사격장 피해지역 지원 입법 청원서 전달

포천시의회 주민서명 등 입법 공론화에 박차

포천시의회 군부대사격장피해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욱)는 지난 16일 국회를 방문, 포천·연천지역 출신 이철우 국회의원을 만나 군부대 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피해상황과 특별위원회 활동내용을 설명하고 사격장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입법 청원서를 전달했다.

포천지역은 여러개의 군부대사격장과 훈련장으로 인해 각종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관내 사격장에 대한 군부대 이용률이 더욱 높아지면서 사격에 따른 소음, 분진, 하천오염, 가축피해 등을 당하고 있으나 국가로부터 별

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포천시의회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군부대사격장 피해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영평지역 미군훈련장을 비롯한 사격장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상황을 수집, 분석해 이번에 사격장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입법청원서를 제출하게 됐다. 포천시의회는 입법을 위한 주민서명을 받는 등 입법 공론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하고 지역 주민들의 동참을 요청했다. 지역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사회 해결 해야할 문제점 많다”

포천신문 조사위원회 제3차 정기회의서 주장



포천신문 조사위원회는 17일 오후 6시30분 포천신문 대회의실에서 제3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포천신문 조사위원회(위원장 김중현)는 17일 오후 6시30분 포천신문 대회의실에서 제3차 정기회의를 갖고 포천시에 산적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포천신문이 적극 앞장서 나가자고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김중현 조사위원장을 비롯해 40여명의 조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돼 영평천의 부패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박준홍 조사위원(그린월드 대표)은 포천은 예로부터 물이 좋기로 유명했지만 포천천과 영평천이 썩어가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 영평중수종말처리장 방류수 80ppm으로 3급수에 불과한데 1급수인 20ppm이하로 방류해 하천오염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포천에는 석산이 많아 돌을 운반하는 차량의 통행이 아주 많지만 달걀 안전장치를 한 차량을 찾아 볼 수가 없어서 사고위험이 높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복용 조사위원회 고문은 “폰테이너 운반차량도 마찬가지로 ‘안전자’를 붙여 달라고 해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다반사이며 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중현 조사위원장은 “포천시를 운행하는 버스가 포천읍과 소흘읍 일대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도로 한복판에 정차함으로써 뒤따라오는 차량을 가로막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포천신문과 조사위원회가 캠페인이라도 나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자”고 주장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치미 조사위원은 “송우리 시내 길에는 신호등이 없어 무단횡단 등으로 사고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포천시는 송우리 시내에 신호등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자고 제안했다.

김찬미 조사위원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생활화 하지 않고 몰래 뭉치 쓰레기를 버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포천신문에서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 생활화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

김명철 조사위원회 포천동지부장은 “포천시내길에서 포천동사무소로 올라가는 길은 일반통행로로 지정되었으나 불법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곡에운전이 불가피하다”며 “포천시는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지부장은 “43번국도에서 개성인삼조합 뒤로 개설된 도로에 진입하기 위한 좌회전 신호가 차량 2~3대 지나면 바뀌고 있어 보다 정제현상을 빚고 있다”며 “신호등 체계를 조정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포천신문 조사위원회는 이날 정기회의를 통해 오는 3월11일 개최되는 제2회 포천민속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제2회 포천민속경기대회 준비에 앞장”다짐

2월18일 제38차 포천신문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포천신문 운영위원회(위원장 윤이용)가 18일 오후 7시 포천신문 대회의실에서 20여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8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3월11일 개최되는 제2회 포천민속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운영위원회가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다.

특히 이날 운영위원회는 “포천의 민속놀이를 계승·발전시키는데 운영위원회가 견인차 역할을 물론 15만 포천시민 대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토대를 구축해 나가자”고 다짐했다.

지난해 제1회 포천민속경기대회를 경험 삼아 알찬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날 제38차 정기회의에서는 회의기가 남았지만 최근 지병으로 회의 참석이 어려운 유병호 운영위원장을 고문으로 추대하고 윤이용 부위원장이 자동으로 위원장직을 승계해 이날부터 임기에 들어갔다.

또 부위원장 자리에는 백봉기 운영위원이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부위원장으로 추대됐다.

포천신문 운영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정원 30명에서 부족한 1명의 운영위원을 증원키로 하고 차기

회의에서 새로운 운영위원을 위촉키로 했다.

아울러 신임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임원들과 발행인과 자리를 마련해 운영위원회 발전과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전개해 나가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제2회 포천민속경기대회 준비 또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돼 포천신문 운영위원회가 제2회 포천민속경기대회를 주관기로 하고 오는 25일까지 예산·비율 등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추진에 나서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포천신문 최호열 발행인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경기 침체속에서도 운영위원 여러분들의 건승하심을 보니 반갑다”며 “운영위원 여러분의 발전이 곧 포천신문의 발전이라 서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위원장으로 취임한 윤이용 위원장은 “부족한 면이 있다”며 “운영위원 여러분의 협조에 힘입어 위원장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신문 운영위원회(위원장 윤이용)가 18일 오후 7시 포천신문 대회의실에서 20여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8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경기 북부지역의 거점도시로 발돋움

황용선 신임 포천시 부시장 就任式



황용선 신임 포천시 부시장은 지난 14일 시청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다.

“역동하는 푸른 포천, 시민중심 지방경영이라는 시정목표를 달성해 포천시가 경기 북부지역의 거점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열정을 쏟겠습니다”

황용선 신임 포천시 부시장이 지난 14일 시청 대강당에서 취임식에서 밝힌 취임 일성.

황 부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산자 수려한 축복의 땅 포천에서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특히 올해 포천시 시야미술제와 포천국제조각감시포지업 등 주요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 부시장은 특히 “시민의 삶의 질은 그 시대 공직자의 고인의 양과 질에 비례한다고 강조하고 성실과 친절, 청렴을 넘어 8백여 공직자와 함께 15만 포천시민의 발전을 위해 많이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파주 출생인 황 부시장은 마포고등학교와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73년 당시 시흥군 광명출장소에서 공직에 입문했으며 99년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한 후, 경기도청 무역진흥과장과 회계과장, 총무과장 등 요직을 역임하고 2003년 2월부터 가평군 부군수로 재직해오다 이번에 포천시 부시장으로 부임하게 됐다.

지역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제2회 포천민속경기대회는 우리가 진행”

포천신문 주부 명예기자단 제6차 임원회의에서 의결

포천신문 주부 명예기자단 제6차 임원회의가 17일 오전 10시 포천신문 대회의실에서 임경순 부단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임원들은 오는 3월 11일 개최되는 제2회 포천민속경기대회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역 읍면동별 선수선발부터 진행과 시상식까지 완벽하게 진행할 것을 다짐했다.

아울러 제2회 포천민속경기대회 바자회를 주부 명예기자단이 열어 불우이웃돕기 기금을 마련키로 해 포천신문이 연중 추진하는 불우이웃돕기 운동에도 동참키로 했다.

이날 최호열 포천신문 발행인은 “포천신문이 연중 추진하는 불우이웃돕기 운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주부 명예

기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포천신문이 정도를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포천신문 주부 명예기자단 임경순 부단장은 “유료독자 1만명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주부 명예기자단이 솔선수범하고 각 위원회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며 포천신문 발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다음 정기회의는 오는 3월 3일 오전 10시30분에 실시하기로 했으며 제2회 포천민속경기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종목별 담당자를 정해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지난 17일 박운국 포천시(장)이 송우초등학교 졸업식에서 우수학생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등록번호 경기 다 50007
2000. 8. 18 등록

포천신문 http://www.ipcs21.com

발행처: (주)한국정보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213-4 고은 B/D 구덕로 : 월 5,000원 / 년 50,000원 / 평생 500,000원

사훈: 주인 의식(主人意識) 정론 직필(正論直筆) 문화 창달(文化傳達)

대표전화 (031) 542-1507	발행인 겸 대표이사 최 호 열
편집국 (031) 542-1506	편집인 구 봉 주
광고접수 (031) 542-9888	편집국장 김 영 복
구독신청 (031) 542-9889	인쇄인 김 규 석
F A X (031) 541-9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주간신문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한다.